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영감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중 '성경의 영감'. 바로 뒤가 24장이므로 23장으로 보인다. 본문 쪽 표시 기준 239~244쪽 무렵.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들에서 정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책들의 목록)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임을 이미 밝혔다고 보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저자의 관계를 묻는다. 디모데후서 3:16의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을 실마리로 삼아, 영감을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한다. 그는 사람 저자의 실수에서 출발하는 최근 책들과 달리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저자들이 받아쓰기 비서였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프레임의 답은 이렇다. 받아쓰기는 실제로 있었고 모욕도 아니지만 드문 일이었다. 보통은 하나님이 저자의 개성 전부를 쓰셨다(유기적 영감). 그 결과는 정보만이 아니라 어조·감정·관점까지 담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완전 영감과 축자영감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생각만이 아니라 '말'을 주시므로 영감은 결국 기록된 텍스트 자체에 있다고 결론 짓는다.

📜 절별 정리

📜 1. 하나님의 책이자 사람의 책 — 영감의 정의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면서 동시에 사람 저자들도 있는 책이다. 이 둘의 관계를 흔히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는 곳은 디모데후서 3:16 하나뿐이다. 그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를 옛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으로 옮겼다. 프레임은 자신의 책 20장에서 말했듯 ESV처럼 '하나님이 숨을

때문에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같아지는 일이 이 모든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영감을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사이에 동일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 계시하실 때마다 일어난다.

1. 성경은 하나님도 저자, 사람도 저자
2. '영감'이란 단어는 디모데후서 3:16에만
3. 원뜻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4. 영감 = 하나님 말과 사람 말을 같게 하는 행위
5. 말로 된 계시 전체에 해당

> **디모데후서 3:16**
> '영감'이라는 말의 유일한 출처. 성경이 하나님이 내쉬신 말임을 보여 준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감을 신적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 2.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 사람 저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프레임에 따르면 성경론을 다룬 최근의 많은 책은 사람 저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저자들이 실수했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고 전제한다. 각주에서 그는 엔즈, 라이트, 맥고완을 그 예로 들고, 부록 J·K·L에서 따로 다룬다고 밝힌다. 이렇게 출발하면 '실수하는 사람의 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위 있게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된다. 프레임은 낡았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자기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삼아 출발한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하신다면 사람 저자는 그저 받아 적는 비서였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계처럼' 다루셨는가?

1. 최근 책들은 사람 저자의 실수에서 출발
2. 그러면 권위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프레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출발
4. 대신 '저자는 비서였나?'라는 질문이 생김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출발점에 관한 방법론 논의다. 근거는 앞 장들의 논증에 기대고 있다

📜 3. 받아쓰기와 플루트 — 구술은 모욕인가

전통적인 성경론을 지닌 신학자들은 거의 모두 '저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답해 왔다. 다만 과거 신학자 중에는 칼빈처럼 하나님의 '구술'(입으로 불러 주어 받아 적게 함)을 꽤 호의적으로 말한 이들이 있다. 아테나고라스(2세기 후반 변증가로 알려짐)처럼 '하나님은 연주자, 선지자는 플루트'라는 기계적 비유를 쓴 이도 있다. 프레임은 이런 표현을 영감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비유로 읽자고 한다. 동시에 그는 일부 신학자들이 '구술론자'로 의심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썼다고 지적한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받아 적게 하신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받아쓰기가 사람의 인간됨을 깎아내린다는 주장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서나 대필자의 일은 고귀한 부르심이다. 바울도 대필자를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은 오히려 놀라운 특권이었을 것이다.

1. 전통 신학은 '기계적 영감'을 거부해 왔다
2. 구술·플루트는 문자적 설명 아닌 비유
3. 일부 신학자는 구술을 너무 피했다
4. 성경에 실제 받아쓰기 장면이 있다
5. 하나님의 대필자 됨은 모욕이 아니라 특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받아쓰기의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4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준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은 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요한계시록 2:1–3:22 (2–3장)

부활하신 주님이 일곱 교회에 보낼 편지를 불러 주시고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신 예

요한계시록 2:1-3:22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

로마서 16:22

대필자 더디오의 인사. 받아 적는 일이 존귀한 섬김임을 보여 준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 4. 보통의 방식 — 저자를 통째로 쓰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받아쓰기는 성경 전체로 보면 드문 일이다.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고른 것을 썼다. 그래서 다윗의 글은 모세와 다르고, 누가의 문체는 요한이나 바울과 확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결과물은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 하신 말씀이다. 이 점에서 영감은 구술과 닮았다. 하나님이 과정 전체를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점에서는 기계적 영감과도 닮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누가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셨다. 역사가이자 의사로서의 재능, 꼼꼼함, 바울과의 친분, 그의 지성과 문체를 쓰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있는 색깔을 더하셨다. 요한과 바울의 서로 다른 재능도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 주는 데 쓰셨다.

1. 받아쓰기는 예외, 보통은 저자가 골라 씀
2. 다윗·모세·누가·바울은 문체가 다르다
3. 결과는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4. 완전한 통제라는 점은 기계적 영감과 닮음
5. 그러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라서 다르다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누가복음·사도행전과 다윗·모세·요한·바울의 글을 예로 든다

📜 5. 유기적 영감 —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도구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구술 영감이나 기계적 영감과 구별하려고 이 과정을 '유기적 영감'이라 불렀다. 하나님이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전체를 쓰셨다는 뜻이다. 타고난 기질, 자란 환경과 교육, 은사, 재능, 문체, 관심사까지 다 포함된다. 프레임은 이 차이들이 하나님이 넘어서야 했던 장애물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르신 수단이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단순한 정보 묶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 정보를 주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어조, 감정, 관점, 정의의 엄격함과 사랑까지, 말로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하려 하신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경험을 지닌 다양한 저자를 쓰셨고, 그 결과는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려던 말이면서도 의미가 아주 풍성한 보물이 되었다.

2. 카이퍼·바빙크가 붙인 이름
3. 차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선택된 수단
4. 말씀은 정보 + 어조·감정·관점
5. 다양한 저자 = 말씀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앞 장들에서 다룬 '인격적 말씀'과 '말씀은 명제만이 아니다'라는 논지에 기댄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하나님이 극복하셔야 할 장벽이 아니었다."

📜 6. 완전 영감과 축자영감

신학자들은 텍스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다른 전문 용어도 써 왔다. '완전 영감'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 저 부분은 그냥 사람 말'이라고 골라내서는 안 된다. '축자영감'은 성경의 생각뿐 아니라 단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프레임은 이것이 이 책의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고 본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인격적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경 텍스트와 같은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듯, 신약 곳곳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들'에 대한 강조가 배어 있다. 프레임은 하나의 세부 근거도 든다. 단수형 '말'은 실제 단어와 문장을 떠난 '사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복수형 '말들'은 그렇게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완전 영감: 성경 전부가 하나님 말씀
2. 하나님 말과 사람 말을 골라내지 말 것
3. 축자영감: 생각만이 아니라 단어까지
4. 신약 전체가 '말씀들'을 강조한다
5. 복수형 '말들'은 사상으로 바꿔 읽기 어렵다

베드로의 고백.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여 있음을 보여 준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마태복음 7:24-28, 24:35 / 마가복음 8:38, 13:31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듣고 행하는 것과 그 말의 영원함을 강조하신다

마태복음 7:24-28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마태복음 13: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요한복음 3:34, 5:47, 6:63, 8:47, 14:10, 14:24, 17:8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며, 그 말이 생명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5: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도행전 15:15 / 고린도전서 2:13

선지자들의 말과 성령이 가르치신 말. 사도의 가르침이 '말'의 차원까지 이른다

디모데전서 4:6, 6:3 / 디모데후서 1:13

'믿음의 말씀', '바른 말'. 사도적 가르침이 말의 형태로 지켜진다

디모데전서 4: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베드로후서 3:2 / 유다서 1:17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권면

요한계시록 1:3, 19:9, 21:5, 22:6-10, 22:18-19

이 예언의 말씀은 참되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까지 말 하나하나에 걸린다

요한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9: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18-19 [18]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7. 생각이 아니라 말 — 영감은 텍스트에 있다

프레임은 14장 이후 전체 논의의 요점을 다시 확인한다. 하나님은 사상이나 개념만이 아니라 '말'을 주신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게 들렸다. 예수님의 사역, 선지자와 사도, 언약 문서와 완성된 정경도 마찬가지였다. 구속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말 없이 생각만 전하지 않으셨다. 각주에서 그는 '사상영감'(하나님은 생각만 주시고 단어는 저자 몫이라는 견해)을 비판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의 영감론이 지성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은 영감을 개념에만 가두는 쪽이 지성주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념뿐 아니라 사건, 약속, 감정, 어조도 계시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16의 '영감'이 선지자의 생각이나 입말이나 저자 자신이 아니라 기록된 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영감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도 틀리지 않다. 신약은 성령이 선지자와 사도의 말을 다스리신다고 자주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감이 본래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텍스트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텍스트를 하나님의 직접 음성만큼 권위 있게 다루셨다. 그리고 생각은 글로 완벽하게 옮길 수 없어도 말은 쓸 수 있다. 영감은 입으로 하든 석판·양피지·종이·디지털에 쓰든 결국 '말'에 속한다.

2. 사상영감이야말로 지성주의다
3. 디모데후서 3:16의 영감 = 기록된 텍스트
4. 사람도 영감받았지만 텍스트도 영감됨
5. 영감은 매체와 상관없이 말에 속한다

> **디모데후서 3:16**
> '하나님이 내쉬신' 것은 저자가 아니라 '성경' 곧 기록된 텍스트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마태복음 10:20**
> 제자들이 말할 때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사람에게도 영감이 있다
>
>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마태복음 22:43**
>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 성령이 선지자의 말을 다스리신다
>
>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 **사도행전 1:16**
>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하신 말씀이 '성경'으로 이루어진다. 사람과 텍스트가 함께 묶인다
>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오해와 반론** ⌄

영감

프레임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 예술가가 '영감받았다'고 할 때의 그 뜻이 아니다.

데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이라는 뜻이다.

언어계시

하나님이 말(소리나 글)로 주시는 계시. 자연이나 사건을 통한 계시와 구별된다.

구술 영감

하나님이 불러 주시고 저자는 받아 적기만 했다는 설명.

기계적 영감

저자가 악기나 도구처럼 아무 개성 없이 쓰였다는 설명.

유기적 영감

하나님이 저자의 기질·환경·교육·재능·문체 등 개성 전체를 수단으로 쓰셨다는 설명. 카이퍼와 바빙크가 붙인 이름이다.

완전 영감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축자영감

성경의 생각뿐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받아쓰기'와 같은 말이 아니다.

사상영감

하나님은 생각만 주시고 그것을 무슨 단어로 쓸지는 저자 몫이라는 견해.

명제적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정보 문장의 형태.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제를 포함하지만 명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영감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다.
- 받아쓰기는 실제로 있었고 고귀한 일이지만 드물었다. 보통 하나님은 저자의 개성 전체를 쓰셨다(유기적 영감).
- 그 결과는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려던 말이며, 정보·어조·감정·관점까지 담은 풍성한 말씀이다.
- 성경은 전부(완전 영감), 단어까지(축자영감) 하나님의 말씀이다.
- 영감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록된 텍스트에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6편 · '하나님의 감동으로' · 영감이란 무엇인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